

첫번째주 (Week 1)

이사야 1:1, 10-20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대면”

여는 기도:

주 되신 하나님,

당신의 공동체와 말씀안에서 함께 거할 수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갈망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당신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오늘의 본문(이사야서 1:10-20)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로서, 앞선 1:9 절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슬픔과 황폐함으로 때문이었는지, 9 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자신들 사이에서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될 뿐 하였다.” (표준새번역) 그런데 이어진 10 절 말씀에서,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돔과 고모라라고 칭하심으로, 그들이 인용한 악한 도시들의 이름이 곧 그들 자신을 가르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남긴 촌철살인의 예언이 목표로 삼고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종교적 의식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거짓된 것이라는 표현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적 위선자들(religious “posers”)과 더불어 그 사실에 대해 매우 불쾌해 했습니다.

“네 생각에는 너가 성전에 찾아오고 희생번제를 잘 들이기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할 것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다. 너희 번제가 만들어 내는 연기는 나를 질식시키고 내 눈은 그로 인해 충혈이 되었다. 네 생각에는 내가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니? 그리고 너희가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너희가 짓은 죄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죄들을 자백할 수 있겠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나를 진실되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 모든 것이 거짓이자 눈요기일 뿐이니 그것들이 나를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구나.”

가까운 친구에게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상상해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눈을 보고,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말한 소중한 가치를 자신들도 완벽히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들이 그 가치와는 정반대가 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당신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향해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일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일이 하나님께 일어난다면 얼마나 그 실망감이 크시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례함으로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 장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모습의 예배든 그것을 드리지만 하면,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사고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이 자신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로 부터는, 찬양받으시기 보단, 차라리 그들로 부터는 등한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1 장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 장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볼때 더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나라가 은혜의 선물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눔에 덧붙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하나님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진정한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는 자들이자, 언제든 우리가 원하던 예전의 삶에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음이란 단순히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을 고대하며 먼 지평선을 살펴보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사야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무렵에 이야기 하듯,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단순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다는 사실에 머무르고 그로부터 오는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의 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달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의 메세지가 오늘날의 교회(the Church)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 중 어떤이들은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오직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지속적인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만이 아닌 전 세대와 인류에 걸쳐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지서의 예언들과 진솔히 대면 하였을때, 그 말씀으로 인한 찢림과 우리 삶의 향한 정직한 평가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저 격한 분노로 이 말씀들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토론해 볼 주제들:

-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우며, 교만하고, 가증스러운 자들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할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혹은 당신의 교회, 가족, 국가)에 대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예상되는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말한 내용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중, 어떤 것이 당신을 더 신경쓰이게 만듭니까?
- 아래에 있는 목록을 읽어내려가세요. 그리고 약 3 분에 걸쳐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적합한 목록을 생각하고 작성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이런 헛된 것들을 가지고 오느냐? 내게 이미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

수많은 희생제사들

숫양들의 제사와 그 짐승들의 기름기

수송아지와 양, 염소들의 피

제사분향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외식적인 기도

억압당하는 자들

도시 안의 살육을 일삼는 자들

뇌물

소외된 과부와 고아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이런 헛된 것들을 가지고 오느냐? 내게 이미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

- 누가복음 12:35-48 절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미가서 6:8 말씀을 살펴보세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완벽해 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것”에 가까운 의미일까요?
- 어떻게 우리가 있는 이 장소(칼빈, 그랜드래피즈)에서 정의를 실천해 나갈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 곳에서 꾸준히 행해 나간다는 것을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시스템(구조)에 기여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현재 당신의 삶 가운데 끼치고 있나요?